

남원시, 도시 품격 높이기 나선다

랜드마크 상징 조형물 등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첫 수립 남원문화관광벨트 확산 조성 생활문화 공공디자인도 추진

남원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는 시는 지난 6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남원시는 상징성을 가진 브랜딩 요소가 부족해 일관성 없는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역 정체성을 살린 도시 브랜딩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남원시는 ▲랜드마크 진입관문 디자인을 적용한 상징 조형물 ▲요천을 따

라 이어지는 힐링공간 디자인 ▲안내사인 체계 디자인 개발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비우기 등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남원문화관광벨트 확산 조성을 목표로 생활문화 공공디자인 계획도 수립 중이다.

남원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12월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남원시의 품격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획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원시민이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는 지난 6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정읍 벚꽃로~천변로 연결 '돌다리' 본격 개통

정읍시는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돌다리'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 개통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돌다리'는 매년 봄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많은 관광객에게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다리다.

지난해 실시설계 완료 후 시민 공모를 통해 교량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해 7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했다.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길이 73m, 폭 5~10m의 인도교를 안공했다.

정읍시는 단순히 정읍천 위를 지나는 교량이 아닌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기 위해 난간부에는 야간경관 조명을 통해 행사 나간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여인의 지순한 사랑과 백제가요 정읍사의 서정을 담아냈다.

또 차도교에는 내장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정읍천 둔치에서 퍼져나가는 꽃향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익산시, 월 최대 100만원 포상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상향 지급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고 유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이성계 어진 진본 보러오세요”

전주 어진박물관 개관 10주년 이달말까지 특별공개

전주 어진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영의 초상) 진본을 이달 말까지 특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경내에 자리한 어진박물관은 평소에는 모사본을 전시하지만 매년 개관일인 11월6일에 맞춰 진본을 선보여왔다.

조선 건국 후 1410년(태종10)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태조어진을 봉안했다. 이후 1872년(고종9) 낡은 구본 대신 새로 모사해 어진을 모셨다.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 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이성계의 초상화로 2012년 국보 제317호로 승격됐다.

진본은 1872년(고종9)에 그린 것으로 비단에 채색한 작품이다.

일월오봉도(전북 유형문화재 제224호)와 임금의 나들이 때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의장대가 들고 따랐던 의장물인 용선, 봉선도 함께 전시한다.

일월오봉도는 태조 어진을 경기전에 봉안할 때 제작된 것으로, 다른 일월오봉도와 달리 특이하

계산 양면에 폭포 그림이 없다.
어진 뒤로 펼쳐진 일월오봉 병풍은 경기전의 것이 유일하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지주식 '곱창김' 올해 첫 생산

이달 말 '마른김 공장' 준공 명품 김 브랜드화 속도

청정 갯벌환경에서 영양분과 햇볕을 가득 담고 자란 고창 지주식 '곱창김'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은 조생종 품종 잇바디돌김으로 생김 모양이 곱창처럼 구불구불해 '곱창김'으로 불리며, 올해 첫 생산을 시작했다.

곱창김은 날씨 등 해황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고, 1~2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만 소량 생산된다.

고창 지주식 김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청정해역의 고창 갯벌에서 생산되며,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발을 노출시켜 김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고창군은 이달 말 '고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을 준공하고 곱창김 명품 브랜드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전통 방식의 재래김 자연건조 환경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음용수 기준 적합한 정수시설 등을 도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지주식 김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곱창김 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성을 홍보해 세계 제일의 명품 수산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주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고창 앞바다에서 양식을 시작한 '곱창김'을 수확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환경전문가 등 거버넌스 체계 강화 익산시, 악취 저감 민·관협력 모색

익산시가 환경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해 악취 저감에 나선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손문선 좋은정지시민넷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익산시 악취저감 추진 실적 보고와 산업단지 내 악취초과 사업장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민원접수 시 절차 간소화 방안, 환경기초 시설에 실시간 악취측정기 설치 등을 추진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수행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익산시는 올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353건의 악취검사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5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5곳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